

“모든 행복은 바로 내 안에 존재해”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파담빠 상계·딜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민족사 펴냄
 1만3천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낱아온 삶과 죽음에 대한 편지. 티베트인들은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간다. 이 책은 매일이 행복으로 충만한 티베트인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를 담았다. 한 발 물러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돈, 명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과 이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한 친구가 있다. 실제로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하게 내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이 책에는 평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진리는 한가지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내 안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질 때, 현실의 고통과 불만과 불평에서 벗어나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스마트폰 등 온갖 첨단 기기가 발달해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행복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불행하다. 시도때도없이 날라 오는 스팸성 및 광고성 연락 또는 주말, 심지어 휴가를 가리지 않고 침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연락 해오는 직



티베트인들은 지금 이순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간다. 그런 매일 매일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인 지혜들을 모아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을 펴냈다. 사진은 티베트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모습

티베트 스님들의 100가지 감로 법문

“고결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선업 증대”

삶의 근원적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 제시

장의 과잉 업무 등 현대인은 쉬어야 하는 시간에도 쉴 수가 없다.

이럴때일수록 지금 현재 우리는 행복함가에 대한 자문만 늘어갈 뿐이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이 행복 지수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들

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의 티베트인들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행복을 느낀다.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일 행복으로 충만한 티베트인들의 지혜를 신간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에서 만날 수 있다.

“고결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대의 선업을 증장시키니, 그대의 스승을 따르도록 하라”

“속임수와 거짓말은 단지 남을 속이는 것만이 아닌 그대 자신도 속이는 것이니, 그대의 양심을 증인으로 삼거라” 등등.

이렇듯 이책은 주옥같은 법문들로 가득하다. 특히

보시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생각은 더욱 가슴에 구구 절절 와 닿는다. “보시는 언제나 모두에게 평등하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자, 노인, 이방인, 친구이거나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있거나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자 등 모든이에게 구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시는 과시와 편애, 보상에 대한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책에서 티베트 스님들은 “재산이 늘어날수록 인색해지고 욕심도 늘어간다”며 물질적 집착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그리고 다시 말한다. “보시는 평등하고 차별 없이 해야 된다”라고.

아울러 계급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도 끊어 버리고 일침을 가한다. 저자는 지위가 높으면 종종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기 마련이라고 설명한다.

먼 옛날 인도의 위대한 성자 파담빠 상계가 티베트 땅의 마을 사람들을 위해 100가지 훈시를 남겼다. 그리고 구전되어 오던 이 가르침을 딜고 켄체 린포체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했다.

이 책은 종교, 종파, 인종을 넘어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명료한 답이 가득하다. 이 책을 읽으면, 그동안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시끄러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부작용 없는 해독제와 같다. 또한 현재 자신의 불행한 삶이 불행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 티베트 스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자. 책에서 권하는 사소한 실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작은 믿음을 갖는다면, 당신의 얼굴을 더 밝고 환하게 변화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동아시아 비구니 교단의 특징 비교연구

동아시아 비구니 교단의 역사

벽공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8천원



불교는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남성 지배 사회와 계급사회에서 여성에게 종교 수행의 기회를 제공한 몇몇 안되는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비구니 교단은 인도에서 성립한 이후, 스리랑카를 거쳐 중국

에 전래했으며, 다시 중국을 통해 한국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 이와같이 전해진 삼국 비구니 교단은 수많은 역경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동아시아 비구니 교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 책의 연구 목적은, 우선 동아시아 비구니 교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 인도에서 출발한 비구니 교단이 중국, 한국, 일본에 어떻게 전파되었고, 비구니 교단이 정착하기까지 국가나 사회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했을까? 비구니 스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활동과 수행을 하였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은 동아시아 비구니 교단의 특징을 찾아 비교한다. 비구니 교단의 탄생과 수계 방법, 그 발전과 변화의 흐름을 살핀다. 기존 사상인 도교, 유교, 신도와의 문제와 국가와의 관계도 상세히 비교한다. 비구니 교단의 존재 가치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밝혀냈으며, 비구니 교육 및 수행의 종류와 깨달음의 내용도 정리했다. 특히 비구니들이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밝혀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김주일 기자

이 시대 부루나 존자 성일 스님 포교 결정체

붓다 콘서트
 -부처님 교화공원 이야기 16

성일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9천원



5비구에서 시작된 귀의와 전법. 부처님의 제자들은 2500년이란 세월 동안 불법에 귀의하고, 그 법을 널리 전해왔다. 그 옛날,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전법은 불법의 미래였던 것이다. 책은 그 옛날의 오래된 미래다. 10월 21일 '부처님 교화공원' 행사를 회향한 화성 신홍사의 주지 성일 스님의 책으로, 스님이 조성한 교화공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책이다.

“29년 전에 인도 부처님의 성지를 처음 순례했을 적에 제일 먼저 톰비니 동산을 참배하고 나오는 버스 속에서 두 시간이나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늘 경전에서는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화창한 톰비니 동산에서 우리 부처님이 태어나셨

다.’는 팔성성도를 읽었는데, 그 때 인도의 톰비니 동산은 잡초가 무성하고, 마야부인께서 태자를 잉태하는 조각상의 아기 부처님과 마야부인의 석조상의 얼굴이 다 찌꺼기 같았다. 이교도들의 짓이란다. 보름 동안 불교유적지를 다니면서 곳곳마다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다. 부처님이 나신 나라, 불교가 천 년이나 꽃피웠던 나라에 불교 믿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구나.” 스님은 전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다. 스님은 평생 전법의 길을 걷기로 다시 한번 서원했다. 40년 넘게 한 길을 걸었고 스님의 원력은 화성 신홍사에서 꽃피웠다.

책은 부처님 교화공원에 모신 부처님의 교화 사리를 그대로 엮은 것으로,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화 사례 15테마와 <부모은중경>의 ‘다생부모십중대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담아놓았다. 책은 작지만 불교의 정수가 담겨 있다. 불교 경전은 너무나 방대하고 그 뜻 또한 깊고 깊어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책이다.

책에는 5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전한 초전법륜을 비롯해서 아사, 라훌라, 앙굴리마라, 주리판타카, 승



세계 최초로 조성된 신홍사 부처님 교화 공원

신홍사 교화공원 내용 그대로 담아

초전법륜 등 대표적 부처님 교화사례 소개

만, 수닷타 등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한 부처님의 교화 사례가 담겨 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마음에 열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부처님의 외아들인 라훌라를 교화하시는 장면에서는 오늘날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켜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청년 아사를 교화시키는 장면에서는 청소년 교육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른 앙굴리마라를 깨우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장면, 바보인 주리판타카를 자비심과 인내심으로 이끌어 스

스로 진리를 깨닫고 아라한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모습은 도처에서 인원이 유린되고 있는 이 시대의 부조리를 경계하고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교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큰 힘, 새로운 희망을 준다.

저자 성일 스님은 “우리나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모셔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하고 배워서 알아야 하며, 배운 것을 실천하여 너도 나도 지혜롭고 자비로워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이곳 신홍사에서 혼신을 다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정성을 기울여왔다. 그렇게 하니 성인 포교도 자연히 더욱 활발해졌다. 이제 언제든 누구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교화공원에서 황룻길을 걸으며 들꽃향기 속에서 자연히 들려오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환희 감동하고 부처님처럼 살아가기를 서원해 본다.”며 발간의 의미를 밝혔다. 부처님 당시 ‘실법제일’이라 불렀던 부루나 존자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순교했다. 그리고 미래불로 다시 올 것을 수기 받는다. 부처님 이래로 2500년이 지난 오늘날 불법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있음은 그 옛날의 미래불, 부루나 존자가 이 땅에 이미 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대불교신문사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애펜터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7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8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밧친	불광출판사
9	맛지마 니까야	대림	초기불전연구원
10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www.unjusa.com
 온주사 (02)3672-718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

(2012년 10월 ~ 11월 현대불교신문 집계)

불과 이론 대성자의 경천동지할 대사자후!!
 우주 탄생과 영혼체의 비밀에 대한 초유의 선언!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 추천본사 - T.033-243-1795, 243-1787 • 불서총판 온주사 -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